

2021_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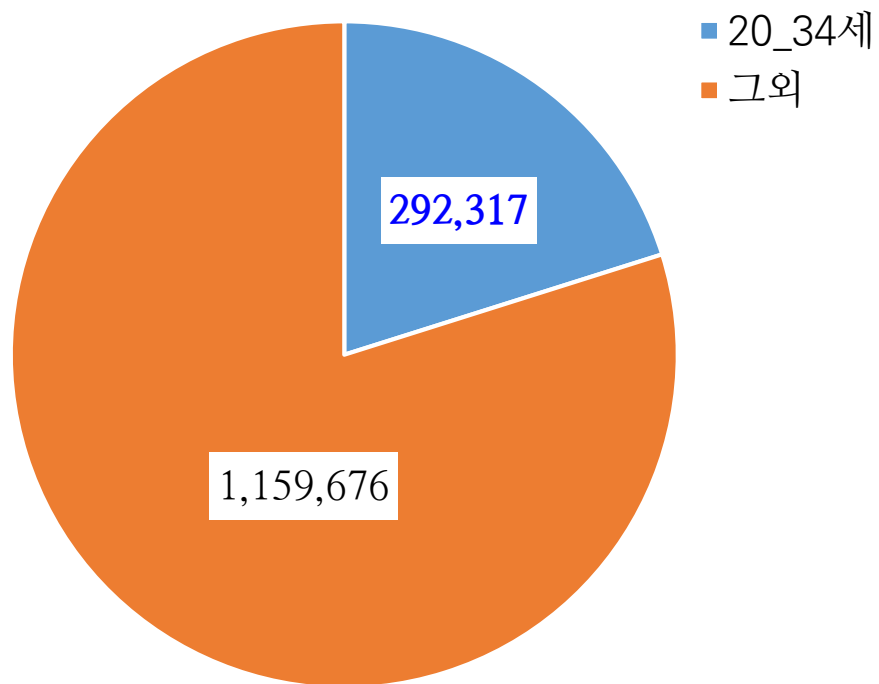
2021, 청년의 삶과 사회정책은?

2021. 02. 18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지금, 광주 청년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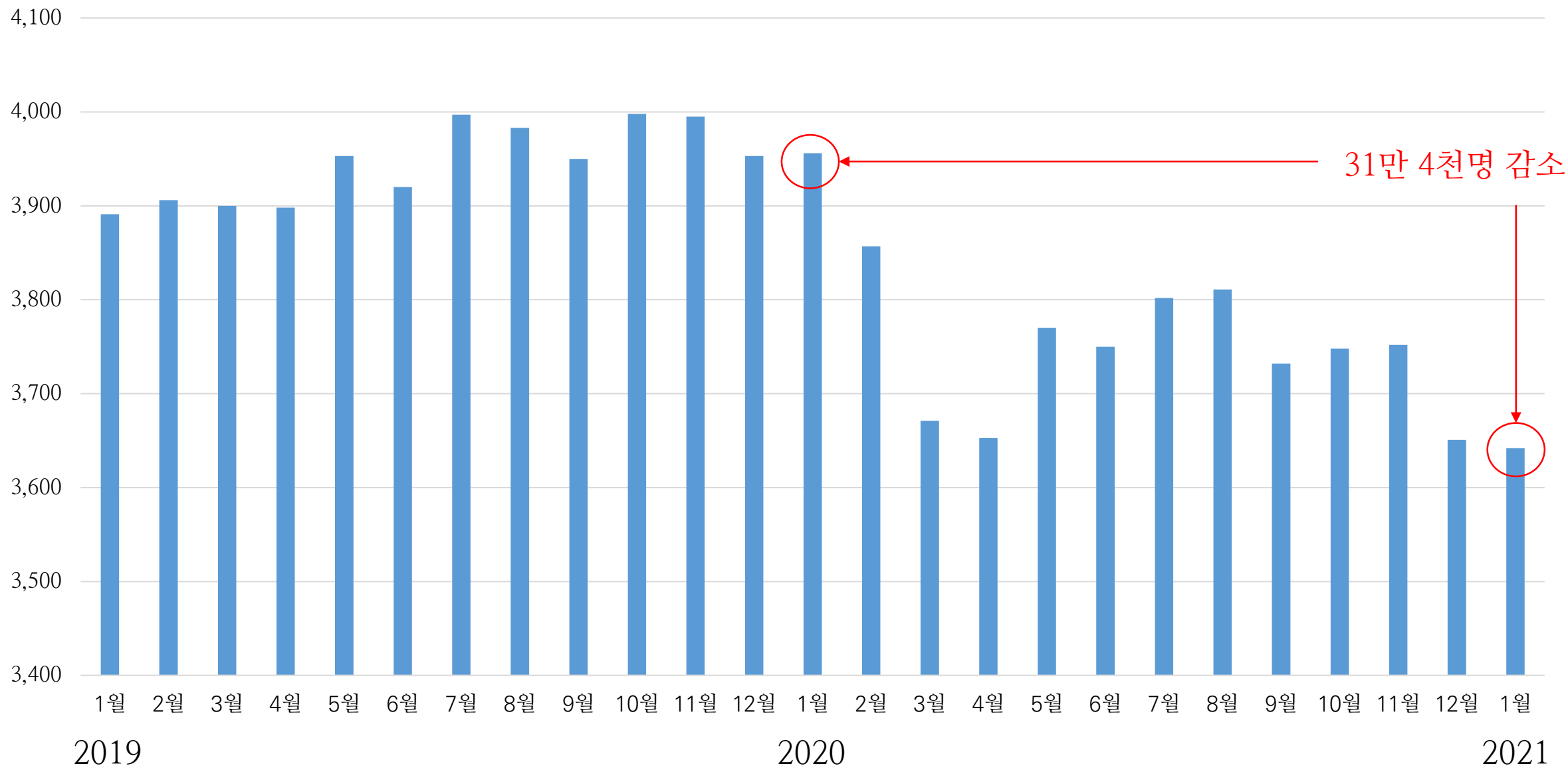
광주시 거주 총인구
(2020.11)_1,451,993명



- 2019년 기준 광주시 거주 총인구는 145만명
- 20_34세 인구는 29만명, 총인구의 20.1%
- 전국적으로 20_34세 인구는 총 인구의 20.0%, 10,330,840명.
-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 2021년, 이들은 중앙정부, 광주광역시 정부로부터 어떤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단위: 천명〉

〈통계청_경제활동인구조사_청년 고용동향(15-29세)_취업자수〉



< 2021년 1월 기준 청년(15~29세) 고용동향 >

1. 청년총 고용률은 41.1%로 전년동월대비 -2.9%p 하락
2. 취업자수는 3,64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4천명 감소
3. 청년총 경제활동인구는 4,02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2천명 감소
4. 청년실업률은 9.5%로서 전년동월대비 +1.8%p 상승
5. 청년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7.2%로서 전년동월대비 +5.8%p 상승
6. 청년총 쉬었음은 4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천명 증가
7. 청년총 비경활인구는 4,83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1천명 증가

1

근로기준법
제64조제1항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
로 사용하지 못한다.'

15세

생산가능인구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지요원,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중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

〈취업자〉(취업률=취업자/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 주간 중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종사자, 일시 휴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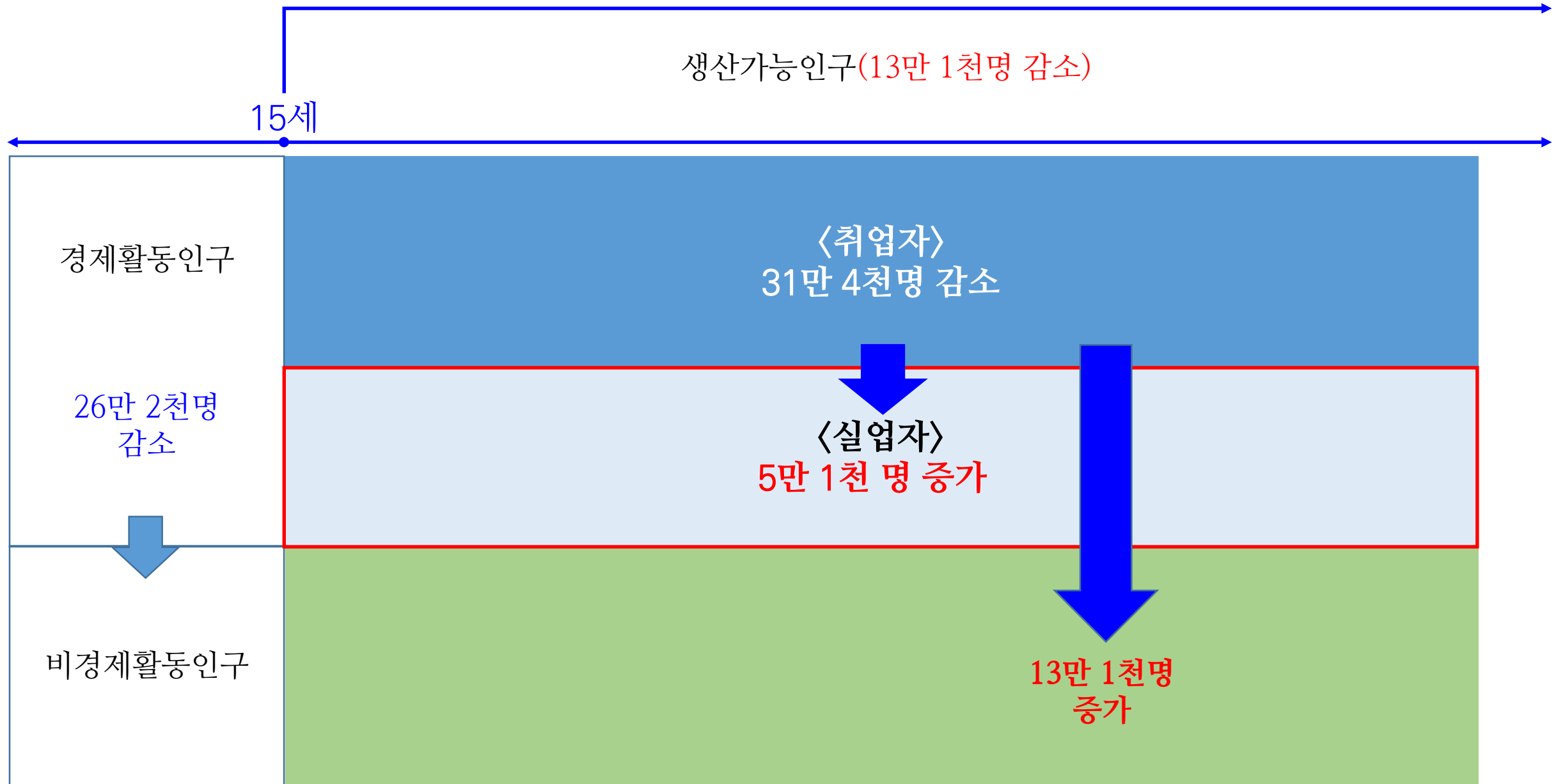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실업자〉(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15세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 일할 능력이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
(가정주부, 학생, 종교인, 진학 준비하는 사람, **취업 준비하는 사람**, 구직 단념자?...)

2021.01 vs. 2020.01, 청년들은?



경제위기('코로나19')



위기 이전 산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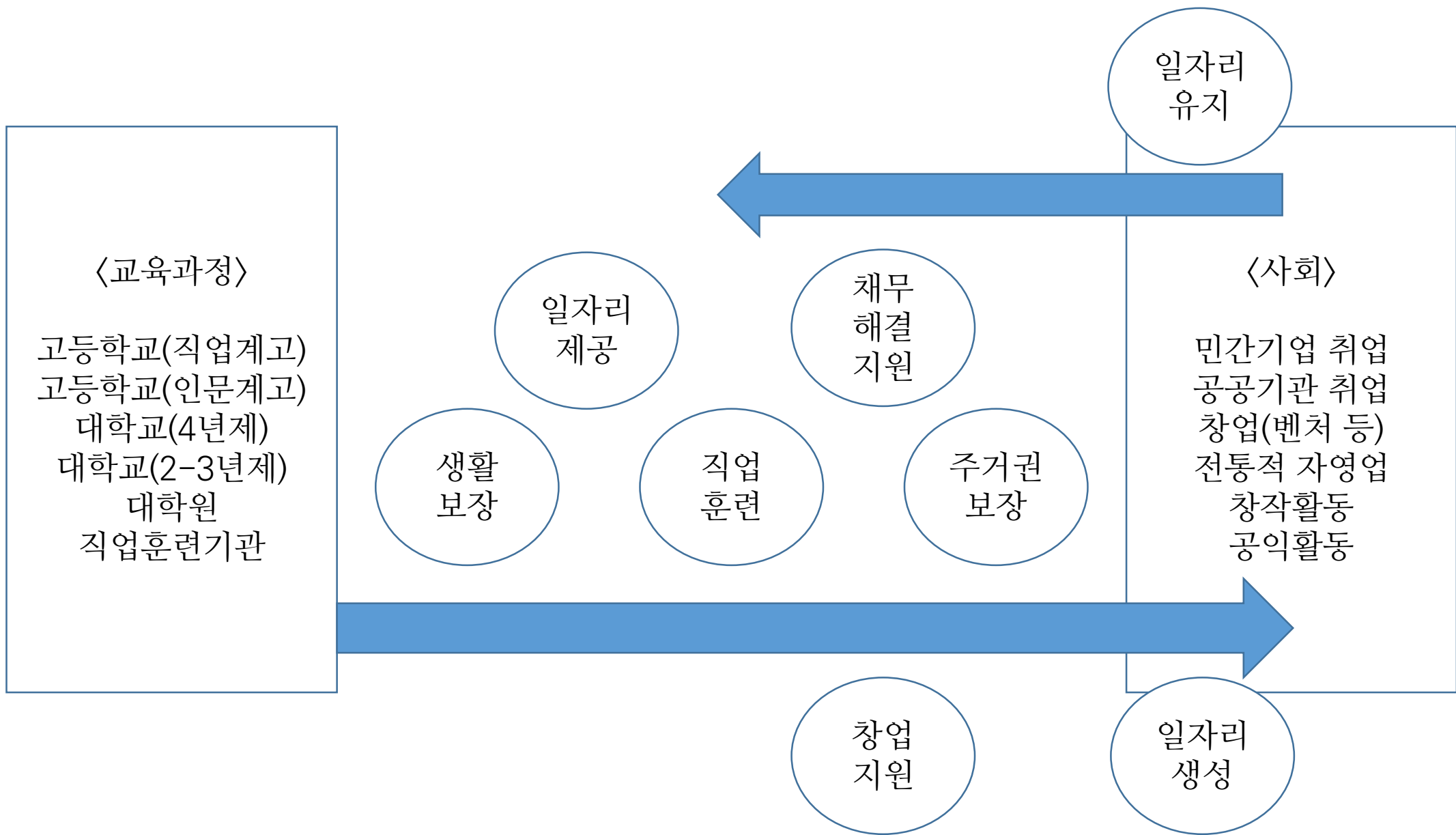
위기 이후 산업구조
사양산업 ↓ (없어진 일자리)
(신)성장산업 ↑ (새로 생긴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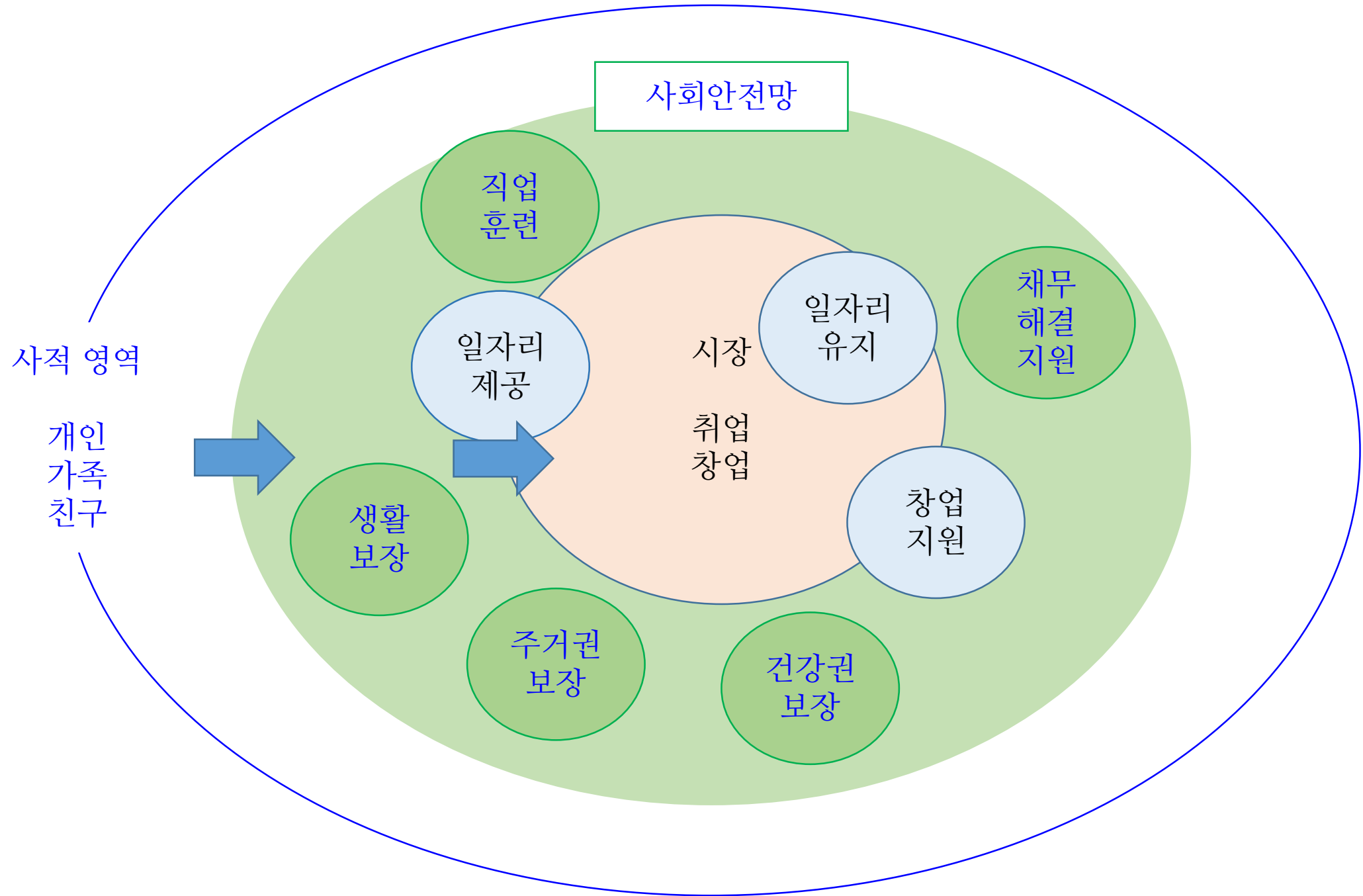
위기 진행과정에서
교육과정 → 사회진입 이행 단계
에 놓인 청년 개인들

위기 진행과정에서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의 이력현상, 상흔효과

위기 이전 교육과정
고등학교/대학교/직업훈련기관
의 교육 프로그램

위기 이전 교육과정과
위기 이후 산업구조에 필요한
일자리/기술의 **미스매치** 현상





‘코로나19’와 사회정책...

일일 변동 내역

신규 확진자 ▼



대한민국 ▼

전체 ▼



각 날짜에는 전날 이후 보고된 신규 확진자가 표시됩니다. · 2일 전 이후로 업데이트됨 ·

출처: [JHU CSSE COVID-19 Data](#) · [데이터 정보](#)

국가 재정			제도 변화
2020년 본 예산	512.3조		
1차 추경(2020.03.17)	11.7조		
2차 추경(2020.04.30)	12.2조	전국민 재난지원금(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2020.05 제정; 2021.01 시행)
3차 추경(2020.07.03)	35.1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20.05 제정; 2020.12 시행)
4차 추경(2020.09.22)	7.8조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미취업청년(특별구직지원금) 생계위기가구	
2021년 본예산	7.8조	3차 재난지원금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 (2021.01 제정; 2021.07 시행)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기사 저소득근로자(대출)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2021.01 제정; 2021.07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021.01 제정; 2021.0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2021.01 제정; 2022.01 시행)

사회보장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

사회보험

기여금을 적립해서
뜻하지 않은 위험이나 소득 중단 시에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비하는 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 부조

기여금 적립방식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원호수당, 농민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사회서비스

기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현재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시민들이 생활보장을 받는 방법

사회보험방식,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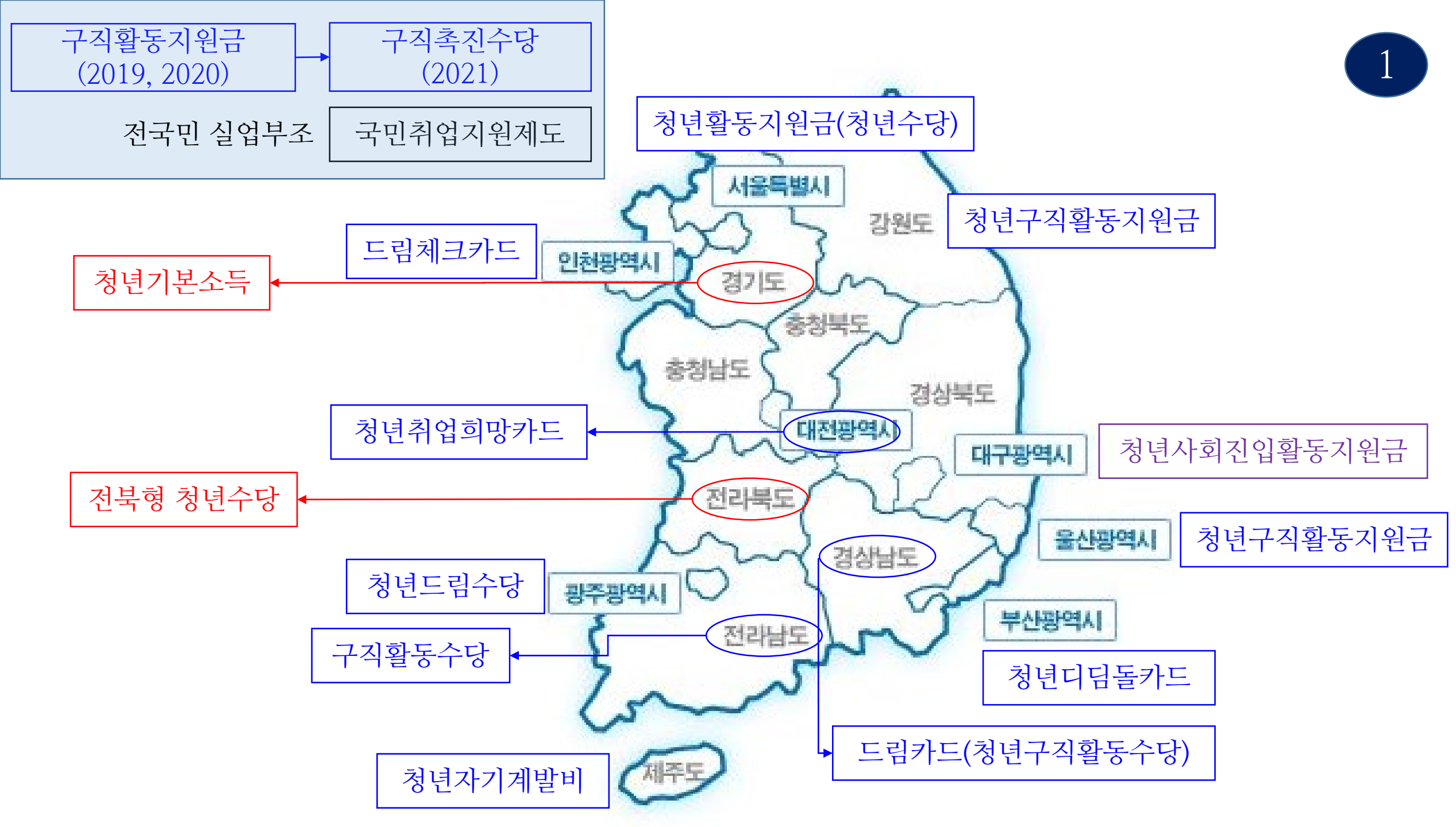
공공부조방식, 실업부조-실업수당(Unemployment Allowance)

공공부조방식, 사회수당(Social Allowance)

고용보험(1993년-;
2020.10 예술인; 2021.07 특고 노동자; 2022 프리랜서?)

국민취업지원제도(2020.06 법 제정; 2021.01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10-); 노인수당(2014.07-);
아동수당(2018.09-); 청년 수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31호, 2020. 6. 9., 제정]

고용노동부(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업소개

자가진단

운영기관

알림마당

마이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궁금하신가요?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까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참여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1.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써 운영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

-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II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I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I 유형 	II 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인당 300만원' 국민취업지원 20만명 신청...청년이 60%

송고시간 | 2021-02-03 14:00

1월 신청자
20만 명 중 12만 명이 청년?

계획대로라면,
2021년 청년 참여자 총수는
23만 명...

나머지 11달 동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18~34세 청년(60.9%)이 가장 많았다. 이어 35~54세(27.2%), 55~69세(11.9%) 순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청년 취업난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여성(53.6%)이 남성(46.4%)보다 많았다. 가구 수로 보면 1인 가구(36.3%), 3인 가구(31.0%), 2인 가구(24.4%), 4인 가구(6.7%) 순이었다.

노동부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착수했다. 현재 6만3천명이 수급자로 인정됐고 이 중 1유형인 5만5천명은 순차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시작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올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한 달 만에 20만명이 신청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다"며 "특히 청년들의 참여가 많은 것을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에게 더욱 힘겨운 시기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서와~

예술인 고용보험은 처음이지?

2020년 12월 10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및 가입조건

문화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120~270일간 구직급여와 90일간 출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조건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입니다.

(근로자인 예술인 × 제 3자를 고용한 예술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② 짧게 일하고 있는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프리랜서 예술인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진 및 경력단절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여부와 관계없이
- 예술인은 수익감소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소득 전체 1.6%의 반반인 각각 0.8%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예술인 보수액 기준 100만원으로 예를 들면 사업주는 0.8%인 8,000원을 납부해야 하며 예술인도 마찬가지로 0.8%인 8,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여러 계약을 합하여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 신청

- (월단위로 계약 시)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 월평균소득 = (계약금액 ÷ 계약일수) × 30

예술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
·연예·만화 등 11개 분야의 프리랜서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

☒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문화예술활동 (노무)을 하는 예술인

※단기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두 달 만에 가입자 1만명 돌파

구직·출산전후급여 수급 가능...미술 분야 가입자가 가장 많아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2021.02.10

문화예술분야별 피보험자 수 비중('21. 2. 5. 기준, %)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18년 예술인 실태조사, %)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 수는 서울(57.6%)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경기(10.9%), 부산(3.9%), 경북(3.8%)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센터(02-3668-0200, www.kawf.kr)에 신고·접수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및 신고서 작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울타리로...퀵서비스, 대리운전, 캐디는 유예

👤 박완순 기자 | ⌚ 승인 2021.02.16 09:49 | ⌚ 수정 2021.02.16 09:49 | 💬 댓글 0

올 7월 택배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개 직종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료율은 1.4%로, 고용보험 분담은 노사 각각 0.7%로 반씩

15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세부 적용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노동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고용보험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1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나머지 3개 직종 중 퀵서비스 및 대리운전 노동자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했다. 골프장 캐디는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계에서 요청한 다른 직종*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하반기부터 2022년 적용방안을 논의하고 2022년 적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노동계 요청 직종: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은 올 7월부터 적용),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지원 조례(2020. 09. 제정)	2022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이 추진된다는데...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019. 10. 제정)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2019. 10. 제정)	마음 아픈 청년들에게 도움될 부분은? 근데 조례명이 좀...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2019. 10. 제정)	청년 1인 가구를 위해 개선점이 있을까?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2018. 11. 제정)	청년이 독립적으로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데 임대주택은?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2018. 05. 제정)	‘광주형 일자리’는 무사히 잘 있는지...
광주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6. 11.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후 개선점은 없는지...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2015. 12. 제정)	
광주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2015. 07. 제정)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확대는 잘 되고 있는지...
광주광역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2013. 01. 제정)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2009. 07. 제정)	대학생인 청년들에게 이자 지원은 잘 되고 있는지...